朝鮮日報

2007년 02월 21일 a09면

대구 "실사단 맞을 준비 끝… 유치 열기에 놀랄 것"

23~24일 실사 앞두고 마무리 점검 한창

"실사단을 맞을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감동과 열기를 전해 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신청한 대구가 23~24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실사단의 방문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설날 연휴 다음날인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유종하 유치위원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 30여명은 실사단이 방문할 곳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점검을 끝냈다. 6만6000석 규모의 주경기장인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립 예정 부지, 대구 EXCO, 실사단이 묵을 인터불고호텔 등이 점검 대상.

실사단 영접 시나리오도 다시 한 번 살폈다. 대구시와 경쟁도시인 호주 브리즈번 실사를 마친 실사단이 22일 오후 5시4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 유종하 유치위원장, 박정기 IAAF 집행이사,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신필렬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박봉규 대구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영접·환영단이 이들을 맞는다. 이들이 다시 인천공항에서 대구공항을 통해 들어오면, 김범일 대구시장, 장경훈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환영단이 뜨겁게 환영한다.

여러 단체들 또한 대구의 육상 열기를 전하기 위해 실사단의 이동코스마다 다양한 육상행사를 준비해 놓았다. 2011m 구·군 대항 릴레이 경기, 대구지역 마라톤 동호인과 종목별 선수 1000여명의 육상 열기 연출, 어린이 5000여명의 육상경기대회 등 다채롭다.

유치위원회 신점식 사무처장은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대구의 육상 열기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대구=박원수기자 wspark@chosun.com

대구월드컵 경기장과 도심 곳곳에 국제육상경기연맹 실사단의 대구 방문을 환영하는 깃발들이 내걸렸다.

이재우기자 w-lee@chosun.com